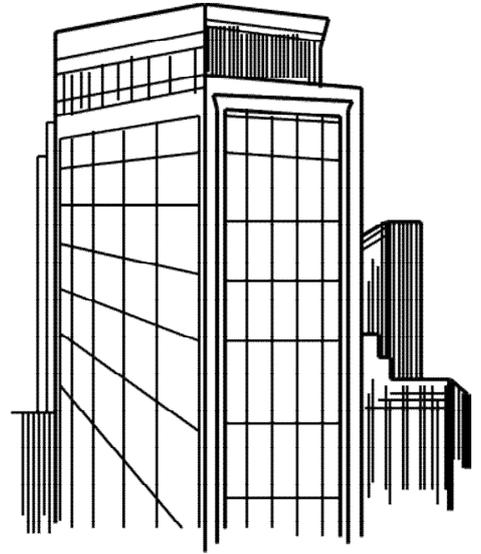


경영정보 브리핑

2022. 2. 1. ~ 2022. 2. 28.



정책이슈

-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 산업부·발전공기업 긴장 속 막판 점검 P. 1
- 올 도로·철도 예산 17조 육박, 건설신기술 시장 훈풍 P. 2
- 올해 에너지 수요 코로나19 부진 뚫고 반등 P. 3

조합·유관기관 등 동향

- 제14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백남길 대표 당선 P. 4
- 건설공제조합, CIO 선임 '난항' P. 5
- 전문건설공제조합, 비대면 업무 활성화 더해 대면 맞춤형 서비스 강화 P. 5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한은행과 해외건설 보증 MOU P. 6
- 전기안전공사, 24시간 고객응대 '미리봇' 서비스 시작 P. 6

금융

- 월간 경제지표 P. 7
- 2월 금융통화위원회 : 한 박자 쉬어가기 P. 8
- 우크라이나 관련 주목해야 할 두가지 P. 8
- 우크라이나 위기에도 연준 3월 50bp 인상 가능성 '여전' P. 9

경 제 · 정 책 이 슈

▣ 해빙기 맞은 건설현장...중대재해 '경고등'

1. 해빙기 맞아 전국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철저한 대비 필요

- 연중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해빙기를 맞아 전국 건설현장이 중대재해 발생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해빙기는 겨우내 몰아쳤던 한파가 걷히며 본격적인 '공사 시즌'을 알리지만, 갑자기 늘어난 작업량과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는 특성 등으로 인해 대형사고도 다발하는 시기.
- 특히 전문가들은 올해는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만큼, 단기간내 공정률을 끌어올리기 보다는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2. 해빙기 맞아 전국 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철저한 대비 필요

- 고용노동부는 23일 해빙기(2~4월)를 맞아 건설공사 현장을 포함한 주요 산업현장의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발표.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으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사고유형과도 직결되는 사항.
- 실제 지난해 해빙기 산재 사망사고를 발생 형태별로 보면, △떨어짐 42.0% △끼임 13.7% △갈림·뒤집힘 9.3% △부딪힘 7.3% △물체에 맞음 6.8% 등의 순으로 사고가 발생.

3. 점검실시 주요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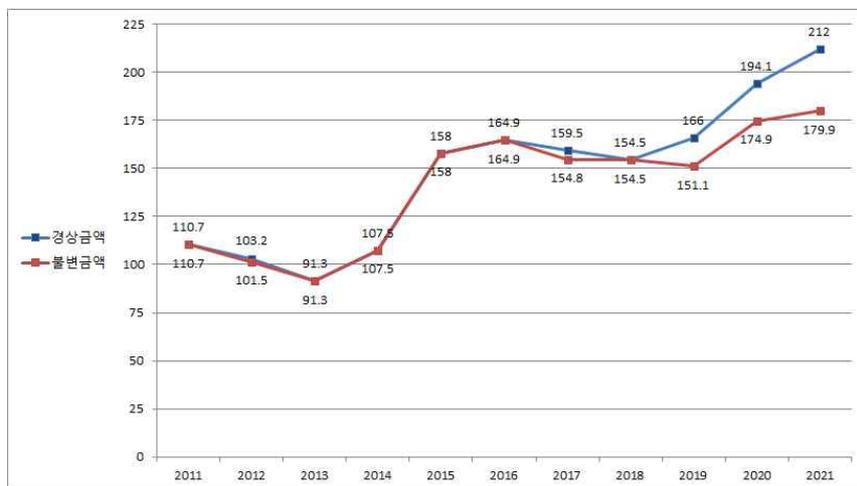
- 정부당국과 더불어 전국 각 지자체도 일제히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에 돌입. 대구와 대전시를 비롯, 제주도, 천안시, 충주시 등이 이번주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고용부 전국 지청과 국토교통부 각 지방청도 조만간 안전점검에 나설 예정.
- 일부 건설사들은 정부당국이나 발주자 점검에 앞서, 경영진을 동반한 본사 임직원들이 직접 주요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나섰고, 일부는 협력업체까지 참여하는 조직을 만들어 현장관리에 추진 중. (e대한경제, 2. 24.(목))

■ 지난해 건설수주 전년 대비 9.2% 증가..SOC·건축 쌍끌이

1.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 역대 최대 실적 기록

- 21일 건설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9.2% 증가한 212조원을 기록하면서 통계작성 이래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 국내 건설수주는 2017~2018년 2년 연속 감소한 이후 2019년 7.4%로 반등. 이듬해에는 민간 주택수주 증가로 194조 1,000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19.6% 증가한 이후 2년 연속 상승세 유지 중.

<국내 건설수주 추이>



2. 공공부분 공종 전반적 양호한 실적이 주요 원인

- 보고서는 실적 개선 이유로 공공부분 실적이 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종에서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 대비 7.5% 증가한 56조원을 기록한 것을 이유로 설명. 이는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 토목수주도 전년 대비 21.7% 늘어나 35조 6,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마찬가지로 역대 두번째로 높은 수치. 특히 도로와 철도, 항만 등 발주가 증가했고 토지조성과 상하수도 수주도 양호했던 것으로 해석.
- 민간의 토목수주는 18조 원으로 전년보다 16.8% 증가.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민간 발전 설비와 토지조성 수주가 활발했음. 비주택 건축수주는 역대 최대인 59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3% 증가. 반도체 공장수주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건물 수주가 활발한 것으로 분석됨. (엔지니어링데일리, 2. 21.(월))

▣ 기업 자금조달 금리 1년새 3배 증가

1. 금리 상승으로 기업 자금조달 큰 폭 증가

- 회사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기업의 자금 조달 부담이 빠르게 증가 중. 삼성과 롯데, 신세계 등 우량 등급 대기업 계열사들이 연 3% 안팎의 금리로 자금 조달에 나섰고, 비우량 기업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연 9%에 육박하는 상황. 둘 다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그동안 저금리로 버텼던 한계기업들은 자금난에 내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2. 금리인상에 따라 기관도 투자 연기

- 국내 우량 회사채(신용등급 AA급 이상)의 평균 이자비용은 9일 2.8% 수준으로 8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 1년 전(1.3% 수준)과 비교하면 세 배 가까이 높은 것. 당장 대기업은 1년 전보다 두세 배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상황.
- 금융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발행을 연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국내 시가총액 1위 건설사인 현대건설은 금리 인상에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 사고 등이 겹치자 이달 계획한 자금 조달을 다음달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 한 증권사 회사채 발행담당 임원은 "기관들이 금리 급등 구간에서 회사채를 샀다가 곧바로 손실을 인식할까 봐 우량기업 투자까지 보류하고 있다"며 "취약업종 비우량 기업은 자금 조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언급. ((한국경제, 2. 9.(수))

조합 · 유관기관 등 동향

▣ 제14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 백남길 대표 당선



- 백남길 (합)서전사 대표가 제14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에 당선됨. 신임 이사장의 지휘 아래 앞으로 3년간 조합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됨.
-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지난 23일 서울 논현동 조합 회관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4대 이사장 선거 결과를 발표. 개표 결과 기호 3번 백남길 후보가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됨. 앞서 조합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전자 투표 방식으로 제14대 이사장 선거를 진행한 바 있음.
- 개표 결과 총 442만 2,746표 중 백남길 후보는 225만 6,318표(51.02%)를 얻어 강기철 후보(176만 6,375표, 39.94%), 박길호 후보(40만 53표, 9.05%)를 따돌리고 최다 득표를 득표.
- 조합은 이날 임기가 만료된 임원들을 대신할 신임 임원도 선임. 신임 이사에는 ▲김창현 (주)태영전기통신 대표 ▲송승길 (주)용화전기통신 대표 ▲김해덕 (주)상중하 대표 ▲이학상 (주)대신전력 대표 ▲김성하 (주)동남 대표 등 5명의 조합원이 선임됐으며, 상근감사와 부이사장의 선임은 신임 이사장에게 위임하기로 뜻을 모았음. (전기신문, 2. 23.(수))

■ 건설공제조합, CIO 선임 '난항'

- 건설공제조합'1호 공모제 출신' 인 박영빈 이사장을 맞아 실시한 조직 개편이 좀처럼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는 중. 4조원 가량의 자금을 담당할 자산운용본부장(CIO)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 건설공제조합은 2월 초 자산운용본부장 모집을 위한 공개채용을 실시. '자산운용 경험 15년 이상'을 주요 자격요건으로 내세워.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접수를 실시함. 문제는 최종관문을 통과한 인물을 찾지 못한 것
-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8일 추가공고를 내고 자산운용본부장 물색을 다시 시작. 이와 달리 전무이사과 금융사업단장을 포함한 나머지 5개 본부장에 대한 임명은 일찍이 마친 상태. (팍스넷, 2. 24.(목))

■ 전문건설공제조합, 비대면 업무 활성화 더해 대면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비대면 업무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대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조합원 만족도를 극대화 해 나갈 전망.
- 조합은 2월부터 4개 지점을 인근 지점과 통폐합하여 전국에 28개 지점만 운영. 몸집은 줄었지만 스마트 심사팀을 신설, 온라인 비대면 업무를 전담 처리하게 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는 평가. 조합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조합원의 이용 편의를 향상시켜나가는 한편, 디지털 조직으로의 전환 속도를 더해간다는 방침.
- 조합은 보증·공제·용자 등 모든 금융상품을 인터넷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중이며, 지난해부터는 조합 가입 시 필요한 예치 및 청약 절차도 지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대표자의 법인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표시 확인을 위해 대면업무가 필수적인 약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조합 모든 업무가 비대면으로 진행 가능. (대한전문건설신문, 2. 18.(금))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신한은행과 해외건설 보증 MOU

-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 신한은행과 '해외건설공사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신한은행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건설사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해외건설공사 관련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각종 보증을 적극 지원할 계획.
- 특히 신한은행은 20개국 165개의 글로벌 현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해외 보증서 발급업무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보증서 발급이 필요한 해외건설 공사현장에 대한 정보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할 예정.
-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의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비전에 발맞춰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 중 하나인 해외건설사업에 보증업무가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 건설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와 한국 건설산업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힘. (서울경제, 2. 16.(수))

■ 전기안전공사, 24시간 고객응대 '미리봇' 서비스 시작

-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1일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고객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찾을 수 있는 24시간 전기안전상담 챗봇 서비스 '미리봇'을 오픈했다고 전함.
- 챗봇의 명칭인 '미리봇'은 공사의 캐릭터인 '미리'와 챗봇의 '봇'의 합성어로, 전기안전에 대한 궁금증을 미리 해결해 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미리봇은 공사 홈페이지(www.kesco.or.kr)와 전기안전여기로(safety.kesco.or.kr)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
- 공사 측은 기존에는 단순한 문의도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 '미리봇' 서비스 시행으로 고객의 간단한 궁금증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서울경제, 2. 23.(수))

금 융

▣ 월간 경제지표

기간 : 2022. 2. 3. ~ 2022. 2. 24.

구 분	변 동 폭	2. 3 기준가	2. 24 기준가
KOSPI	▼ 59.02	2707.82	2648.80
KOSDAQ	▼ 43.39	891.60	848.21
S&P500	▼ 188.74	4,477.44	4288.70
CD(91일, %)	-	1.50	1.50
국고채(3년,%)	▲ 0.068	2.158	2.226
회사채(3년, AA-, %)	▲ 0.097	2.733	2.830
국고채(10년, %)	▲ 0.058	2.566	2.624
미국고채(10년, %)	▲ 0.136	1.836	1.972

□ 증시

- [국내]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와 러시아 전쟁 리스크의 영향과, 수급불안정이 맞물려 하락 추세에 있음
- [미국] FOMC를 앞두고 기준금리 50bp 빅스텝 우려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으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냄

□ 금리

- [국내] 지속되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대선을 앞두고 추경 등 재정정책이 금리 상승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음
- [미국] 22년 3월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고, 연 5~7차례의 인상이 예상되면서 미국채 금리가 급등추세에 있음

■ 2월 금융통화위원회 : 한 박자 쉬어가기

- 2월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1.25%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으며, 물가 전망치 대폭 상향
- 금통위의 인플레이션 우려와 추가 인상 의지는 여전했으나 예상보다 완화적으로 해석됨. 기준금리 1.50%이 긴축이 아니며 정책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절할 것이라며, 정책 변경 시 물가 뿐 아니라 그 외 다른 고려요인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기 때문.
- 한은 총재는 대선 및 새 정부 수립 등으로 4월보다는 5월 25bp 인상폭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보임. 이와 별개로 시중금리는 단기적으로 연준 긴축과 물가 상승 압력 등에 반응. 기준금리 2%이상을 반영할 수 있지만 실제 연내 최종 기준금리는 1.75%로 예상. 오미크론 확산 경로와 소비의 기초적 회복 여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입 전망치 하향 가능성 및 연준 긴축 부담 등 성장 경로의 하방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 있음. ((IBK투자증권 2. 25(금))

■ 우크라이나 관련 주목해야 할 두가지

- 첫 번째 핵심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 수위인데, ①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처럼 돈바스 합병을 서방측이 용인하고 사태를 봉합하는 경우, 제재의 강도는 제한적일 것임. 이는 유가 등 각종 원자재 공급망에 큰 차질을 촉발하지는 않을 것 ②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도 점령하는 경우, 미국 등 서방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임. 이 경우 유가 급등이 불가피하고, 안전자산선호로 달러화도 급등할 것임.
- 두 번째 핵심은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인데, 소위 신냉전 시대 본격화 시 향후 글로벌 역학관계, 즉 신냉전시대가 본격화된다면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더욱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임. 나아가 러시아 계획 또는 의도대로 진행되는 경우 중국의 패권의지도 더욱 강해져 미-중 갈등 또한 심해질 우려가 있음. (하이투자증권 2. 23(수))

■ 우크라이나 위기에도 연준 3월 50bp 인상 가능성 '여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 되면서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연준의 금리 인상 전망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준이 예상보다는 덜 공격적인 긴축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내놓기 시작했고, 선물시장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짐.
- 다만 연준 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금리인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전보다는 더 매파적인 목소리를 내는 등 50bp인상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다음달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을 71.2%로 보고 있으며, 50bp인상 가능성은 28.8%로 지난주 대비 계속 후퇴중임. (뉴스핌 2. 24(목))